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워싱턴

박영선 - MBC 기자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정연주의 워싱턴 비망록 1 《서울-워싱턴-평양》이다.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의 겉표지는 빙그레 웃고 있는 정연주 논설주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빙그레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그리고 그의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매에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어떤 단단함이 들어 있다. 그 단단함은 때론 서슬이 퍼렇다. 그가 안티조선운동의 선봉자로 펜을 들었을 때도 저 멀리 워싱턴에서 미국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을 때도 그랬다. 처음 빙그레 웃는 정연주 논설주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의 나긋한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는 그의 그런 서슬 퍼런 단단함과 그 웃음 그 목소리가 연결되지 않아 한참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의 그런 비장한 단단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이 책은 바로 그런 의문점을 하나둘씩 벗겨준다. 1982년 이 사회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의 삶의 궤적이 이 시대가 만들어온 역사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미국으로 떠나던 1982년 나는 문화방송에 입사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전 우리 선배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그냥 말로 전해 들었을 뿐이다. 이 책은 그렇게 말로만 전해 들던 1970년대 말과 1980년 초 아픔의 역사를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 전해준다. 아픔의 역사가 담긴 책이 마치 드라마처럼 다가오는 것은 그곳에 또한 인간적인 냄새가 배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삶이란 무엇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나는 이 책을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들이 그저 말로만 전해 들었던 유신과 광주항쟁 그리고 5공화국, 또 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이고 북한에 대한 잣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란 곳에 근무를 해봤고 평양을 다녀온 경험자로서 이 책은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미국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한 시각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자로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나 때론 망각하기 쉬운 기자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워싱턴 비망록'이라는 제목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워싱턴 비망록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제2권이 기다려진다. 